

『영미연구』

제63집 (2025): 61-90

<http://doi.org/10.25093/ibas.2025.63.61>

AI 번역 시대의 문화특정항목 번역과 교육적 함의: 『H마트에서 울다』 번역 사례와 학습자 설문 분석을 통한 번역 전략과 표층결속성 고찰

최 은 경

단독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H마트에서 울다』의 문화특정항목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AI/기계 번역과 인간 번역이 텍스트 결속성과 문화적 맥락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비교 분석하고, 영어와 한국어의 결속성 차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여 AI시대의 문화특정항목 번역 교육이 가지는 함의를 고찰하는 데 있다. 나아가 학습자가 텍스트 결속성과 문화적 요소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번역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특정항목은 특정 언어·문화에 고유하게 존재하거나 그 안에 문화적 함의를 담고 있어 번역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다양한 번역 전략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어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문화특정항목이 텍스트 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맥락 의존적인 경우, 어휘적 접근뿐만 아니라 텍스트 차원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어휘 및 텍스트 차원에서 AI번역/기계번역이 문화특정항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한편 학습자 설문을 통해 번역 전략뿐만 아니라 표층결속성 차원에서 학습자들이 문화특정항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이를 통해 어휘 차원의 번역 전략을 넘어 표층결속성

을 고려한 번역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문화특정항목 번역 전략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교육적 관점에서 제시한다.

주제어: 문화특정항목, 번역 교육, AI번역, 표층결속성, 번역 전략

I. 들어가며

문화특정항목(Culture-Specific Items, CSIs)은 특정 언어나 문화에 고유하여 목표 문화권에서 직접적인 대응 개념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안에 담긴 문화적 함의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번역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작용한다(Franco Aixelá 58). 이러한 항목은 단순한 언어적 변환을 넘어 깊은 문화적 이해를 요구하며, 특히 AI 번역과 같은 기술 매개 번역 시대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AI/기계번역은 빠르고 효율적인 번역을 제공하지만, 텍스트 결속성과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도 통번역 학습자들은 기계번역의 주요 한계로 문화 요소가 담긴 텍스트를 꼽으며, 특히 문화특정항목의 기계번역 품질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홍승연 외 197).

최근 AI/기계번역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인간 번역과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공존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번역 교육은 단순한 기계번역 오류 수정에 그치지 않고, AI 및 기계번역이 처리하기 어려운 문화특정항목을 인간 번역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맥락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적 논의를 요구한다. 즉, 기계번역이 자동화된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텍스트의 결속성과 문화적 함의를 인간 번역가가 어떻게 보완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

기술의 발전으로 AI/기계번역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화특정항목과 관련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

하다. 본 연구는 『H마트에서 울다』(*Crying in H Mart*)의 문화특정항목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AI/기계번역과 인간 번역이 텍스트 결속성과 문화적 맥락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비교·분석한다. 또한, 영어와 한국어의 결속성 차이 및 번역 전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여, AI 시대에 문화특정항목 번역 교육이 가지는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학습자가 텍스트 결속성과 문화적 요소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번역 전략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문화특정항목의 번역은 주로 어휘 차원에서, 다양한 번역 전략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문화특정항목이 텍스트 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맥락에 따라 의미가 변형되는 경우, 단순한 어휘적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텍스트 차원에서의 결속성과 연계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H마트에서 울다』는 영어가 모국어인 작가가 한국 문화를 영어로 서술한 드문 사례로, 문화특정항목 번역 연구의 중요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에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요소들이 다수 등장하며, 특히 K-푸드가 작품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사례를 분석하여 번역 전략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현재 영미권에서 한국 문화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번역 교육적 논의와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단순히 번역 전략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의 영어권 서술 방식과 그 수용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번역 교육에서 문화특정항목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번역가가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문화적 조정과 맥락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텍스트 분석과 학습자 설문 조사를 통해 AI/기계번역이 문화특정항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분석하고, 학습자들이 문화특정항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조사한다. AI/기계번역과 인간 번역이 문화특정항목을 번역하는 방식의 차이를 어휘 및 텍스트 차원에서 비교하고, 설문을 통해 문화특정항목 번역에서 표층결속성과 번역 전략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며, 이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AI시대의 문화특정항목 번역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둔다. 특히, 어휘 차원의 일대일 번역 전략을 넘어 표층결속성을 고려한 번역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특정항목 번역 전략의 활용 가능성을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문화특정항목과 번역 전략

문화 용어, 문화소, 문화 관련 어휘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며, 문화적 차이로 인해 번역 시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화특정항목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어왔으나, 일반적으로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공동체의 고유한 사회·문화에서 비롯된 특정 어휘 및 언어사용 관습”(이근희 6)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의식주 관련 물질문화, 지역 및 거리 등의 고유명사, 사회문화, 조직 및 관습 등이 모두 포함된다(Newmark 95). 문화특정항목은 목표 문화권에 부재하거나 다른 상호텍스트적 입지에서 사용되기에 번역 시 문제가 된다(Franco Aixelá 58). 문화특정항목은 원문을 이해하고, 번역문을 생산하는 두 문화적 측면에서 번역가에게 어려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학계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Florin, Ivir, Newmark, Franco Aixela, Mailhac 등). 국내에서도 문화특정항목은 문화번역, 영상번역, 관광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그 성과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나,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텍스트를 중심으로 문화특정항목을 정의하고 분류하며, 이들에 대한 번역 전략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문화특정항목을 어휘/표현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게다가 기존에 제시된 번역 전략은 구분이 모호하여 실제 번역 결과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프랑코 아이헬라(Franco Aixelá)는 문화특정항목의

번역 전략을 크게 보존(conservation)과 대체(substitution)로 분류하며 보존의 방법으로 원문을 그대로 반복(무번역), 원문의 음을 차용(음차), 언어적(비문화적) 번역, 역자주 등을 사용하는 텍스트의 주석 추가, 텍스트내 주석 추가를 꼽았고, 대체의 방법으로 동의어, 보다 친숙한 문화특정항목을 사용하는 제한된 일반화, 보편적 어휘를 사용하는 일반화, 번안, 삭제, 재창조를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번역 실무 및 연구에서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일반화 전략을 적용하면서 주석을 추가하거나, 음차를 사용한 뒤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보완하는 등 하나의 번역 전략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방식이 존재한다. 또한 특정 번역 전략이 보다 적절하다고 단정하는 처방적 논의는 번역 실천의 복잡성을 간과하는 문제를 가진다. 문화특정항목 번역에서는 텍스트의 맥락, 등장 빈도,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문학 작품 번역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단어 대응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문학 작품 내에 등장하는 문화특정항목은 작품의 배경이 되는 문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작품의 내용 및 작품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김윤진 20)이기 때문에 일대일로 번역 전략을 분석하고 제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관광 명소, 음식명 등을 번역할 때는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표기가 필요하지만(이승재 2012, 2014; 정호정&최소희), 문학 작품의 경우 주제 전개와 함께 문화특정항목이 여러 번 등장하거나 독자가 앞뒤 맥락을 통해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학번역에서는 단순한 일관성을 넘어 언어 차이에 따른 텍스트의 결속성을 유지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독자의 배경지식 또한 문화특정항목 번역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한국어 문화특정항목이 영어권 독자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 원어를 그대로 음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실제로 *banchan*, *gimbap*, *samgyeopsal* 등의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되기도 했다. 문화특정항목의 번역 전략은 두 문화 간의 거리와 위상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상빈은 한국 문화를 영어로 번역하는 대표적 공동번역가 브루스 풀턴(Bruce Fulton)과 주찬 풀턴

(Ju-Chan Fulton)의 작업을 분석하며, “포장마차”, “배추” 등의 번역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는 목표 문화에서 문화특정항목의 상대적 지위가 높을수록 번역 필요성이 줄어들고, 번역 방식이 더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반면, 독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문화특정항목의 경우 번역가의 결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기에 번역가는 문화 용어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130-32).

문화특정항목의 번역에서는 언어 방향성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이 변화함에 따라, 번역 전략 또한 이에 발맞추어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와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의 번역 전략을 문화적 관점에서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권오숙은 문학 작품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특정항목의 다양한 번역 전략을 연구하며, 베누티(Venuti)의 자문화 중심 번역 개념을 인용하였다. 서양 문물이 유입되면서 한국어에서 수많은 개념과 용어가 음차 형태로 차용되었음을 지적하면서도, 반대로 한국 문화를 서구에 소개하는 번역에서는 자문화 전략이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불균형한 태도를 비판했다(283). 즉, 한국 문화가 영어로 번역될 때는 영어권 독자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변형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 태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어 문화특정항목이 영어에서 외래어로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번역가의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83-84).

최근 한국 문화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번역 전략과 문화적 관점을 고려한 번역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문화특정항목 번역은 단순한 용어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위계, 목표 독자, 텍스트 장르, 사회적 맥락 등 다층적인 요소가 결합된 과정이다. 따라서 향후 번역 연구와 실천에서는 기존 번역 전략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하는 문화적 환경에 적절한 번역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2 문화특정항목과 표층결속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특정항목의 번역 전략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결속성 차원에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텍스트의 결속성은 문장 및 담화 단위에서 의미적 일관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크게 표층결속성(cohesion)과 심층결속성(coheren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심층결속성은 텍스트 외부의 경험적 맥락, 상황적·사회적 맥락 간의 결속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반면, 표층결속성은 텍스트 내부에서 문법적·어휘적 장치를 활용하여 의미적 연결을 형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학자들에 따라 표층결속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응결성’, ‘결속성’, ‘응집성’ 등이 혼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성(textuality)을 강조하고 개념적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층결속성과 심층결속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할리데이와 핫산(Halliday & Hasan)은 표층결속성을 “문법적, 어휘적 결속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의미적 관계(semantic relation)”(6)로 정의하며, 이를 텍스트성의 핵심 요소로 제시한다. 텍스트 내 일관적 의미를 유지해 주는 표층결속성의 장치는 크게 문법적 결속 장치와 어휘적 결속 장치로 나눌 수 있는데, 문법적 결속 장치는 지시(reference), 대용(substitution), 생략(ellipsis) 등으로 문법적 요소를 통해 이미 언급한 대상을 지시하거나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것을 가리킨다(한정한 132-34). 어휘적 결속 장치는 동의어, 유의어 등을 사용하여 반복을 피하면서도 의미의 유기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결속성 개념은 텍스트성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준거로 제시되며, 표층결속성이 반드시 심층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Enkvist 110-11; 정희모 96), 텍스트가 일관된 의미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결속 장치의 사용 방식은 언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는 원문의 결속 장치를 인식하고 이를 목표 언어의 텍스트 구현 방식에 맞게 변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어는 반복 표현을 피하는 경향이 강하며, 다양한 결속 장치를 활용하여 문장 간의 논리적 연결성을 강화한다. 반면, 한국어는 반복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

용되며, 영어와 달리 일부 결속 장치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를 문화특정 항목 번역 교육에 적용하면, 개별 문화특정항목을 특정 번역 전략을 통해 번역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해당 항목이 텍스트 내에서 결속 장치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문화특정항목이 단순한 개별 어휘가 아니라 텍스트 차원에서 맥락적 연결을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목표 언어의 텍스트 형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를 재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문화특정항목의 번역 전략과 표층결속성을 분석한다. 첫째, 『H마트에서 울다』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AI/기계번역과 인간 번역을 비교 분석한다. 둘째, 학습자 설문을 실시하여 영어 및 한국어 번역에서의 문화특정항목의 결속성 차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번역 사례는 연구 목적에 따라 『H마트에서 울다』에서 발췌하였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성장한 작가 미셸 자우너(Michelle Zauner)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통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며, 작품에 ‘김치’, ‘갈비’, ‘김밥’과 같이 영미권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진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자죽’, ‘나박김치’, ‘뽕튀기’와 같이 상대적으로 낯선 문화특정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목표 문화에서 상대적 지위가 낮은(이상빈 130) 문화특정항목의 경우에도 이탤릭체 표기 없이 음차하여 제시(예: jeon, ppeongtwigi)하거나, 한 문장에서 여러 번역 전략을 혼용하거나, 동일한 문화특정항목을 ‘Korean fermented soybean soup’, ‘doenjang jjigae’, ‘soybean stew’와 같이 여러 용어로 지칭하는 등 다양한 문화번역 사례가 존재한다(최은경 321). 이는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해외 독자들의 K-푸드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다(마승혜 78)는 평가를 받

고 있다. 전체 텍스트를 비교·분석하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어, 문화특정항목이 한 문단 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번역 시 대상 독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국 문화 요소를 포함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하였다. 해당 작품은 “미국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한국 문화가 등장하여 언어·문화적 혼종이 드러난다는 것을 특징”(최은경 306)으로 하며, 기존의 문화특정항목 번역 방식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최은경에 따르면, 해당 작품에서는 gochujang, jjigae, tongbaechu 등 한국어 원어를 이탤릭체 등의 유표적 표기 없이 음차하여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동일한 항목을 텍스트 내에서 gochugaru, red pepper, red pepper flakes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특정 문화에 종속되지 않고 두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321). 원문의 이러한 특징은 일관된 번역 전략을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문화특정항목 번역 시 보다 세심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H마트에서 울다』 사례의 번역 비교·분석에서는 총 6개의 AI/기계번역 시스템인 구글 번역(Google Translate), 파파고(Papago), 딥엘(DeepL), 챗지피티-4(ChatGPT-4), 워드바이스 AI(Wordvice AI), 딥시크(DeepSeek)와 국내에서 출판된 인간 번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생성형 AI의 경우 동일한 문장을 입력하더라도 출력이 매번 다소 상이하게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 1월 30일 기준 최초 생성된 번역 결과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에 포함된 AI 번역기는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글 번역과 파파고(박혜선, 최진실 81)를 비롯하여, 최신 유료 버전의 챗지피티-4, 영미권에서 학술적 번역에 주로 활용되는 워드바이스 AI,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개발된 딥시크를 포함하여 시의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번역 결과물에서 문체적 오류 등 문화특정항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들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학습자 설문은 국내 소재 대학에서 학습 중인 외국인 학습자 26명과 통번역을 공부하는 한국인 학습자 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외국인 학습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본 연구가 국내에서 시행되었으며, 외국인 응답자를 모집하는데 현실

적인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문화특정항목 번역에서 표층 결속성을 학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으며, 국내 번역 교육이 주로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학습자는 비교군으로서 연구의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외국인 응답자 규모가 연구의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영어가 모국어인 참가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으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라도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선호하는 언어로 영어를 선택한 학습자를 포함하였다. 설문은 응답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구글폼, Google Forms)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 **기초 정보 수집:** 이름(익명 가능), 모국어, 학습 배경(영어 및 한국어) 등
2. **텍스트 사례 분석:** 제시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영어 및 한국어에서의 표층결속성 이해도 조사 및 비교
3. **번역 전략 평가:** 문화특정항목 번역 전략에 대한 인식, 문화특정항목 표층결속성 평가

응답자들은 연구자가 선정한 『H마트에서 울다』의 사례를 기반으로 제시된 질문에 응답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개방형과 폐쇄형을 혼합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한국어, 영어의 표층결속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결속성이 요구되는 문화특정항목의 번역 방식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분석 결과

4.1 문화특정항목 AI/기계번역 인간 번역 비교 분석

문화특정항목의 번역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기에 앞서, AI/기계번역의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학생들은 번역 과제를 수행할 때 기술 매개 번역을 당연하게 활용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특정항목이 다수 포함된 텍스트의 경우, 기술 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기계번역의 결과물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학습자들은 문화특정항목이 포함된 번역문이 자연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특히 문화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문화특정항목의 경우 기계번역이 적절한 번역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인된 바 있다(홍승연 외 197). 이에 본 연구는 실제 AI/기계번역 결과물과 인간 번역가가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된 번역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재 기계번역이 문화특정항목 번역에서 보이는 한계를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번역 교육적 측면에서 실용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H마트에서 울다』에서 문화특정항목이 한 단락 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한인 마트에서 ‘뽕튀기’를 보며 어머니를 떠올리는 장면(<사례 1>)과 한국 방문 시 시장에서 ‘회’를 떠다 먹는 장면(<사례 2>)을 선정하였다. 영어 원문에서는 동일한 문화특정항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다양한 동의어나 대명사를 활용하여 표층결속성을 구현하는 전략을 보인다. 이러한 동의어 및 대명사의 활용은 영어의 표층결속성 유지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독자에게 간접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효과를 갖는다.

첫 번째 분석 대상 사례는 저자가 H마트에서 ‘뽕튀기’를 들고 있는 아이를 보고 어머니를 떠올리는 장면이다([표 1], ST1). 원문에서는 ppeongtwigiro 음차한 후, 다음 문장에서 Those little rice-cake Frisbees로 재차 언급하며 문화특정항목의 모양과 재

료를 설명한다. 이후 the Styrofoam-like disks로 다시 표현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어휘를 활용하여 명확한 영어 표층결속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영미권 독자가 처음 ppeongtwigi라는 단어를 접하더라도 후속 설명을 통해 해당 음식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한국어 번역 과정에서 달라진다. 한국인 독자의 경우 ‘뽕튀기’의 모양과 재료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원문과 동일한 번역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에서는 원문과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표 1]을 통해 원문(ST1), AI/기계번역 결과, 그리고 국내에서 출판된 공식 번역본(TT1)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에서 밑줄은 연구자가 강조한 부분이다.

[표 1] 『H마트에서 올라』 <사례 1> 원문 및 번역문, AI/기계번역 결과 비교

ST1	when some kid runs up double-fisting plastic sleeves of ppeongtwigi and I'll just lose it. <u>Those little rice-cake Frisbees</u> were my childhood, a happier time when Mom was there and we'd crunch away on <u>the Strofoam-like disks</u> after school, splitting them like packing peanuts that dissolved like sugar on our tongues.(5)
Google	어떤 아이가 뽕튀기 플라스틱 슬리브를 두 주먹으로 휘두르면 나는 그냥 미칠 거야. <u>그 작은 떡 프리즈비는 내 어린 시절이었고</u> , 엄마가 거기에 계셨고 학교가 끝나면 <u>스트로폼 같은 디스크를</u> 으개서 혀 위에서 설탕처럼 녹는 포장 땅콩처럼 쪼개던 더 행복한 시간이었다.
파파고	어떤 아이가 뽕튀기의 이중 주먹 플라스틱 소매를 들고 달려오면 저는 그냥 잃어버릴 거예요. <u>그 작은 떡 프리즈비는 제 어린 시절이었고</u> , 엄마가 계셔서 방과 후에 <u>스트로폼 같은 디스크를</u> 혀에 설탕처럼 녹은 땅콩을 싸듯이 쪼개서 먹어치우곤 했던 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DeepL	어떤 아이가 뽕튀기 비닐봉지를 두 주먹 쥐고 달려오면 그냥 잃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u>그 작은 떡 프리즈비는</u> 엄마가 방과 후에 <u>스티로폼 같은 원반을</u> 혀에 설탕처럼 녹아내리는 땅콩처럼 쪼개서 먹던 행복한 어린 시절이었어요.
ChatGPT-4	...어떤 아이가 뽕튀기 플라스틱 슬리브를 두 손에 들고 달려오는 걸 보면 난 그냥 미쳐버릴 것 같다. <u>그 작은 떡 프리즈비는 내 어린 시절이었다</u> . 엄마가 함께 계셨던 더 행복했던 시절, 학교가 끝나면 <u>그 스티로폼 같은</u>

	디스크를 손으로 부숴 포장 땅콩처럼 쪼개고, 혀 위에서 설탕처럼 녹는 그 맛을 즐기던 시간이었다.
Wordvice	어떤 아이가 두 손에 플라스틱 봉지를 들고 뛰어오면 나는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 <u>그 작은 떡 프리즈비</u> 는 내 어린 시절의 상징이었고, 엄마가 함께했던 더 행복한 시절이었어. 우리는 학교가 끝난 후 <u>그 스티로폼 같은 원반</u> 을 씹으며, 마치 설탕처럼 혀에서 녹아내리는 포장용 땅콩처럼 나누어 먹곤 했지.
Deepseek	어떤 꼬마가 뽕튀기 플라스틱 봉지를 양손에 잔뜩 들고 달려오면 난 정말 감정이 폭발할 거야. <u>그 작은 쌀과자 프리즈비</u> 들은 내 어린 시절이었어, 엄마가 계시고 더 행복했던 시절, 방과 후에 스티로폼 같은 원들을 씹어대며, 포장용 땅콩처럼 쪼개고 설탕처럼 혀 위에서 사르르 녹았던 그 때로.
TT1	... 낮뜨르는 아이가 뽕튀기를 담은 비닐봉지를 양손에 하나씩 집어드는 모습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린다. 원반 모양의 <u>그 양중맞은 쌀과자</u> 는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엄마가 내 곁에 있고, 방과후에 둘이서 동글납작한 스티로폼처럼 생긴 과자를 한입 크기로 입에 넣고 아작아작 씹으면 그것이 혀 위에서 설탕처럼 사르르 녹아버리던 행복한 시절이었다. (12-13)

구글과 파파고의 번역에서는 음차된 문화특정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뽕튀기’, ‘뽕크위기’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그 작은 떡 프리즈비’, ‘스티로폼 같은 디스크’와 같이 음차를 활용한 직역을 수행함으로써 원문의 결속성이 약화되었다. 특히, 지시형용사 없이 사용된 ‘스티로폼 같은 디스크’는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딥엘의 경우, 음차 표기는 정확했으나 ‘떡 프리즈비’, ‘스티로폼 같은 원반’ 등 용어 번역이 일관되지 않아 번역문이 매끄럽지 않으며, 독자의 이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워드바이스 AI는 해당 문화특정항목을 삭제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이로 인해 후술되는 ‘그 작은 떡 프리즈비’가 뽕튀기가 아닌 ‘플라스틱 봉지’와 동일한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챗지피티-4와 워드바이스 AI는 세 번째 언급에서 ‘그’라는 지시형용사를 추가하여 원문의 결속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으나, 대용 중심의 번역 방식으로 인해 목표 언어인 한국어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딥시크의 번역에서 눈에 띄는 점은 원문의 ‘rice-cake’을 ‘떡’이 아닌 ‘쌀과자’로 번역한 점의

다. 이는 ‘그’라는 지시형용사와 결합하여 앞서 언급된 뽕튀기의 재료와 속성을 보다 자연스럽게 부가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전반적으로 AI/기계번역은 음차된 문화특정항목을 정확히 처리하는 데 한계를 보이며, 원문의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텍스트 차원에서 결속성의 재현이 미흡하다. 또한, 목표 언어인 한국어의 결속성 구조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대상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인간 번역가는 문화특정항목과 관련된 원문의 구조를 한국어에서 자연스럽게 변형하여 전달한다. 예를 들어, ‘그 작은 떡 프리스비’(구글, 파파고, 답엘, 챗지피티-4, 워드바이스 AI)가 아니라 ‘원반 모양의 그 앙증맞은 쌀과자’로 번역함으로써 원문에서 ‘원반’이 언급된 이유가 형태적 유사성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뽕튀기의 재료와 속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또한, 세 번째 언급에서는 ‘둥글납작한 스티로폼처럼 생긴 과자’라고 번역하여 앞서 언급된 ‘과자’를 반복함으로써 해당 표현이 뽕튀기를 지칭함을 명확히 한다. 이처럼, 인간 번역가는 원문의 다양한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어의 자연스러움을 살리는 방향으로 번역을 수행하였다.

[표 2] 『H마트에서 올라』 <사레 2> 원문 및 번역문, AI/기계번역 결과 비교

ST2	We brought back <u>hwe</u> from the market and set our takeout containers down on the white hotel bedspread. We ate slices of whitefish <u>sashimi</u> , Korean style, freshly killed, still chewy, wrapped in red leaf lettuce and dipped in ssamjang and gochujang with vinegar, washing <u>it</u> down with big bottle of Kloud and shots of Chamisul.(205-206)
Google	우리는 시장에서 <u>hwe</u> 를 가져와서 테이크아웃 용기를 하얀색 호텔 침대보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흰살 생선 <u>사시미</u> 를 먹었습니다. 한국식, 갓 잡은, 아직 쫄깃한, 붉은 잎 상추에 싸서 쌈장과 고추장에 식초를 찍어서, 큰 병의 Kloud와 참이슬 샷으로 씻어내렸습니다.
파파고	우리는 시장에서 술을 가져와 흰색 호텔 침대보에 테이크아웃 용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갓 죽인 <u>백어회</u> , 한국식, 여전히 쫄깃한 <u>백어회</u> 를 먹고 적엽 상추에 싸서 쌈장과 고추장에 식초를 찍어 클라우드 큰 병과 참이슬 샷으로 씻었습니다.
DeepL	시장에서 회를 사서 테이크아웃 용기에 담아 하얀 호텔 침대보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갓 잡아 쫄깃쫄깃한 한국식 회를 상추에 싸서 쌈장과 고추장에 초장을 찍어 먹은 후 클라우드 큰 병과 참이슬 한 잔으로 씻어 먹었습니다.
ChatGPT-4	우리는 시장에서 회를 사 와서 흰색 호텔 침대보 위에 포장 용기를 내려놓았다. 갓 잡아 쫄깃한 흰살생선을 한국식으로 먹었다. 적상추에 싸서 쌈장과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며, 클라우드 큰 병과 참이슬 샷으로 함께 넘겼다.
Wordvice	우리는 시장에서 회를 사와서 흰색 호텔 침대보 위에 테이크아웃 용기를 놓았다. 우리는 한국식으로 갓 잡은 흰살 생선 사시미를 먹었고, 여전히 쫄깃한 상태로 빨간 상추에 싸서 쌈장과 식초가 섞인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 그리고 큰 병의 클라우드 맥주와 차미슬 소주를 곁들여 마셨다.
Deepseek	우리는 시장에서 회를 사 와서 호텔의 하얀 침대보 위에 테이크아웃 용기를 내려놓았다. 우리는 한국식으로 신선하게 잡힌, 아직 쫄깃한 흰살생선 회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빨간 상추에 싸서 쌈장과 고추장에 식초를 섞어 찍어 먹었다. 큰 병의 클라우드 맥주와 참이슬 소주로 함께 즐겼다.
TT2	우리는 시장에서 회를 사와 호텔 침대의 흰 시트 위에 짹 펼쳤다. 흰살생선 회를 한국식으로 먹었는데, 쫄쫄쫄쫄한 식감이 살아 있는 활어회를 상추에 싸서 쌈장과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큰 병에 든 클라우드 맥주와 참이슬을 마셨다.(343)

<사례 2>에서도 유사하게 AI/기계번역과 인간 번역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원문에서는 ‘hwe’라는 한국어 음차 표현을 사용한 후 이를 ‘sashimi’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식 표현을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Korean style’이라는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해당 음식이 일본이 아닌 한국 문화의 일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영미권 독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차 표현을 보완하기 위한 설명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대명사를 활용하여 영어의 표층결속성 장치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AI/기계번역은 ‘hwe’를 ‘회’로 정확히 번역하였으나, 일부 경우에는 원문을 무번역으로 유지하거나(예: 구글 번역 - hwe), 의미를 왜곡하여 오역하는 경우(예: 파파고 - 술)가 발생하였다. 또한, 구글 번역과 Wordvice는 ‘사시미’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음차 번역으로,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영어 원문에서 대명사(it)를 사용하여 텍스트의 결속성을 유지한 부분은 AI/기계번역에서 대부분 삭제되거나 자연스럽게 않게 번역되었으며, 그 결과 문장의 의미가 불분명해졌다. 반면, 인간 번역은 ‘회’를 명시적으로 재언급함으로써 문장 간의 연결성을 유지하고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I/기계번역은 문화특정항목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며, 특히 원문의 표현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언어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텍스트 차원의 결속성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번역 결과물이 목표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지 못하여 의미 전달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도 확인되었다.

최근 번역 실무 및 교육에서 AI/기계번역과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술 매개 번역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보완·수정하는 방향으로 번역 교육의 지향점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분석 결과는 번역 교육에서 문화특정항목을 번역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규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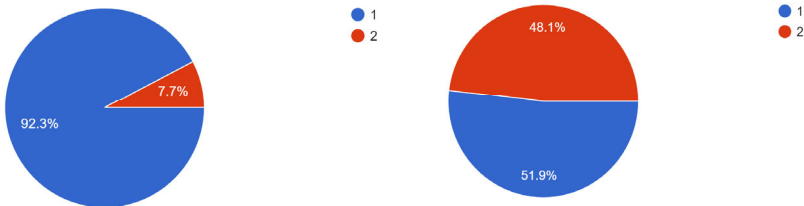
4.2 문화특정항목 표층결속성 관련 학습자 설문 분석

설문에서는 학습자들의 한국어와 영어 표층결속성 차이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원문에 더해 동일한 문화특정항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버전을 비교군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학습자들에게 어떤 텍스트가 결속성 측면에서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질문하였다.

[표 3] <사례 1> : 『H마트에서 올라』 문화특정항목 영어
표충결속성(ppeongtwigi) (p. 5)

1	 when some kid runs up <u>double-fisting plastic sleeves of ppeongtwigi</u> and I'll just lose it. Those <u>little rice-cake Frisbees</u> were my childhood, a happier time when Mom was there and we'd crunch away on <u>the Strofoam-like disks</u> after school, splitting them like packing peanuts that dissolved like sugar on our tongues.
2	 when some kid runs up <u>double-fisting plastic sleeves of ppeongtwigi</u> and I'll just lose it. Those <u>ppeongtwigi</u> were my childhood, a happier time when Mom was there and we'd crunch away on <u>ppeongtwigi</u> after school, splitting them like packing peanuts that dissolved like sugar on our tongues.

[그림 1] <사례1>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왼쪽), 한국인 학습자(오른쪽) 응답 비교



[그림 1]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외국인 학습자 대부분(92.3%)은 1번 텍스트가 더 자연스럽다고 택하였다. 그 이유로는 1번 텍스트가 ‘다양한 동의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속성을 지키고 있어서’, ‘이해하기 쉬워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번 텍스트가 ‘어떤 음식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어 더 좋았다’는 응답이 있었다. 반면 2번 텍스트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영어에서의 자연스러운 표충결속성 구현 방식으로 다양한 표현과 지칭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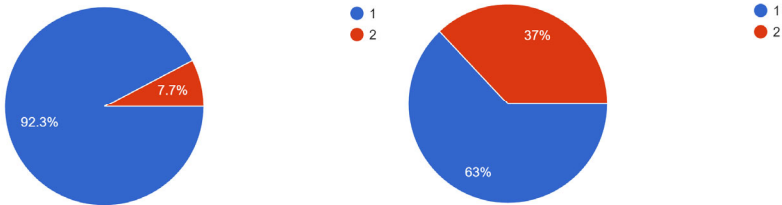
반면, 한국인 학습자 중 1번을 택한 비율은 51.9%에 그쳤다. 일부 학습자들은 ‘영어에서는 동어 반복을 최대한 피한다’고 답하며 영어의 표충결속성을 이해하고 있음

을 보였지만,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은 동어가 반복되는 2번 텍스트를 선택하였다. ‘굳이 계속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다’,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표현하니까 약간 헛갈린다’, ‘부가 설명이 거추장스럽다’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없고,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더 편하게 읽힌다’ ‘일관되게 하나의 단어로 번역하였기에 읽고 이해하는 데에 용이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2번 텍스트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학생들이 영어 작문 시 대명사, 유의어 등 어휘의 반복 사용을 피하려고 노력한다(88.9%)고 응답하며 영어의 표층결속성 특징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과 상반되며, 이는 텍스트 분석 및 번역 과정에서 영어의 특성인 표층결속성 장치와 해당 텍스트를 읽게 될 영미권 독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표 4] <사례 2> : 『H마트에서 올라』 문화특정항목 영어 표층결속성(hwe)
(p. 205-06)

1	We bought back <u>hwe</u> from the market and set our takeout containers down on the white hotel bedspread. We ate slices of whitefish <u>sashimi</u> , Korean style, freshly killed, still chewy, wrapped in red leaf lettuce and dipped in ssamjang and gochujang with vinegar, washing <u>it</u> down with big bottle of Kloud and shots of Chamisul.
2	We bought back <u>hwe</u> from the market and set our takeout containers down on the white hotel bedspread. We ate whitefish <u>hwe</u> , Korean style, freshly killed, still chewy, wrapped in red leaf lettuce and dipped in ssamjang and gochujang with vinegar, washing <u>hwe</u> down with big bottle of Kloud and shots of Chamisul.

[그림 2] <사례2>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왼쪽),
한국인 학습자(오른쪽) 응답 비교



두 번째 사례([표 2])의 경우에도 비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과는 유사했다.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앞선 사례와 동일하게 92.3%가 1번 텍스트를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선택하였다. 반면, 한국인 학습자 중 37%는 문화특정항목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번을 택한 학생들은 ‘회라는 한국어 발음이 그대로 영어로 표기되어서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용어의 일관성’, ‘회를 고유명사로 지칭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바꿔 쓰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져서’,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등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의 영어 텍스트의 표층결속성 구현 방식보다는 한국어 텍스트에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어 텍스트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여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로 번역된 『H마트에서 울다』에서 동일한 부분을 발췌한 후, <사례 3>은 문화특정항목인 ‘뽕튀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사례 4>는 원문의 표층결속성 장치를 직역하는 버전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5] <사례 3> : 『H마트에서 올라』 문화특정항목 한국어
표층결속성(뽕튀기) (p. 12-13)

1	... 낮모르는 아이가 뽕튀기를 담은 비닐봉지를 양손에 하나씩 집어드는 모습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린다. <u>원반 모양의 그 앙증맞은 찹과자는</u>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엄마가 내 곁에 있고, 방과후에 들어서 동글납작한 스티로폼처럼 생긴 과자를 한입 크기로 입에 넣고 아작아작 씹으면 그것이 혀 위에서 설탕처럼 사르르 녹아버리던 행복한 시절이었다.
2	... 낮모르는 아이가 뽕튀기를 담은 비닐봉지를 양손에 하나씩 집어드는 모습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린다. <u>그 뽕튀기는</u>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엄마가 내 곁에 있고, 방과후에 들어서 뽕튀기를 한입 크기로 입에 넣고 아작아작 씹으면 그것이 혀 위에서 설탕처럼 사르르 녹아버리던 행복한 시절이었다.

[표 6] <사례 4> : 『H마트에서 올라』 문화특정항목 한국어 표층결속성(회)
(p. 343)

1	우리는 시장에서 회를 사와 호텔 침대의 흰 시트 위에 짹 펼쳤다. <u>회살생선 회를</u> 한국식으로 먹었는데, 쫄쫄쫄쫄한 식감이 살아 있는 <u>활어회를</u> 상추에 싸서 찜장과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큰 병에 든 클라우드 맥주와 참이슬을 마셨다.
2	우리는 시장에서 회를 사와 호텔 침대의 흰 시트 위에 짹 펼쳤다. <u>회살생선 사시</u> 미를 한국식으로 먹었는데, 쫄쫄쫄쫄한 식감이 살아있는 <u>그것을</u> 상추에 싸서 찜장과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큰 병에 든 클라우드 맥주와 참이슬을 마셨다.

<사례 3>에서 약 78%에 달하는 한국인 학습자들은 ‘뽕튀기’라는 문화특정항목의 동어 반복이 더 자연스럽다고 답하였다. ‘이미 뽕튀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설명이 더 불편하다’, ‘한국사람이라면 뽕튀기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단어들로 부연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른 설명들이) 어색하고 번역체 같다’,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좋지만 한국 독자에게 정보가 과한 면이 있다’고 답하며 2번 텍스트를 선택한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모국어인 한국어에서 문화특정항목 반복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으나, 다양한 설명이 포함된 1번 텍스트를 택한

경우도 있었다(22.2%). 이들은 ‘좀 더 자세히 묘사해서’, ‘동일 단어의 반복보다는 다양한 표현을 통해 글이 더 다채로워진다’, ‘구체적인 묘사가 문학 작품의 흥미를 더해 준다’, ‘문화를 이해하고 있으면 다양한 지문을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텍스트 유형, 번역의 의도, 그리고 문화번역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로 독해가 가능한 외국인 응답자는 ‘고유명사를 반복하는 것이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라며 2번을 택하기도 하였다.

<사례 4>에서는 원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표현(hwe, sashimi, it)을 번역문에서 ‘회’, ‘(흰살생선) 회’, ‘활어회’ 등으로 ‘회’ 등으로 번역하며 통일감을 부여한 결과, 83.3%에 해당하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이를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번 텍스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었는데, 특히 ‘사시미’라는 일본식 표현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학습자들이 다수 있었다. 또한, 다수의 학습자들은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것이 어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1번 텍스트를 선호하였다. 반면, 16.7%의 학습자는 2번 텍스트가 더 자연스럽다고 답했는데, 이들은 ‘회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라 잘 읽히지 않는다’, ‘회라는 단어의 반복이 부자연스럽다’, ‘회, 흰살생선회, 활어회가 모두 다른 종류로 느껴진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학습자들은 대명사 사용 등 영어와 한국어의 표층결속성 방식의 차이에 대해 일부 인지하고 있으나, 동어 반복의 자연스러움에 대한 인식은 학습자마다 상이함을 보여준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 표층결속성에 대한 이해도가 외국인 학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 작문 시에는 반복 어휘 사용을 피하려고 한다고 명확히 응답하였으나, 영어로 작성된 문화특정항목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압도적으로 표층결속성이 높은 텍스트를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한국인 응답자들은 사례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설문에 참여한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와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통번역을 전공

(혹은 이중전공)하는 학부생들로, 양언어 및 번역에 대한 이해가 일정 수준 이상 선행되어 있고, 영어 및 한국어의 표층결속성 차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례에서 언어 간 차이에 따른 표층결속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는 번역 시 영어와 한국어 간의 표층결속성 차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문화특정항목 번역 및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2 문화특정항목 번역 전략 관련 학습자 설문 분석

문화특정항목의 번역 전략과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외국인 학습자들은 작품 내에 문화특정항목에 대해 정확한 명칭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명사의 반복적 사용을 선호하는 비율은 53.8%였으며, 동의어나 다양한 표현을 원하는 비율은 46.2%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진행된 표층결속성과 관련된 설문 결과와 상반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외국인 응답자들은 영어식 표층결속성에 익숙하며, 다양한 표현을 통해 배경지식이 부족한 문화특정항목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완벽히 구사하지 못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정확한 용어를 알고자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48.1%의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미권 문화특정항목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음차 및 설명, 동의어를 혼합하여 번역하는 전략을 선호하였다. 자국화하여 한국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는 전략을 선호하는 비율은 25.9%였고, 한국어 표층결속성 특성에 따라 음차 표현을 반복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해, 이 또한 한국어에서는 반복 사용에 무리가 없다고 답한 앞선 표층결속성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언어 방향이 한국어에서 영어로 전환되는 경우, 학습자들은 영어 텍스트의 특성과 독자들의 배경지식을 고려해 번역 전략을 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61.2%의 응답자들은

영어에서 반복 표현을 피하고 다양한 표층결속성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아래와 같이 답했다.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영어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 하는 것처럼 동어를 반복 사용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지문에서 반복 사용하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 처음에는 음차하고 각주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이후에는 대명사를 활용하여 번역할 것 같다.

만약 한국 문화를 설명하거나 알리는 목적이 큰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문학 작품의 경우 대부분은 문화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38.8%의 응답자들은 여전히 영어 텍스트에서 문화특정항목 반복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반복 사용하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고 생각.

문화 관련 용어이므로 음차를 해서 반복하는 것이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한국 문화 관련 용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단어를 쓸 때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 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차하고, 처음 그 단어가 언급될 때 설명을 풀어서 해준다. 이후에는 음차해서 반복해서 쓰는게 읽을 때 가장 이질적이지 않은 것 같다.

처음 사용하였을 때 각주나 괄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 이후 반복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문화특정항목에 일관된 번역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습자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출발 문화에서는 대부분 고유명사로 간주되는 문화특정항목들을 다양한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설명을 추가하는데에 대한 이견이 드러났다. 이들은 일부 설명 추가가 필요하겠지만 반복 사용이 오히려 독자의 이해를 돕고, 가독성 및 텍스트의 명확성을 높인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구 대상이 된 텍스트에서는 문화특정항목이 한국어 발음을 영어로 음차하여 무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화적 배경지식이 충분한 독자들의 경우 이러한 표기의 반복 사용이 읽기 경험과 내용 이해에 큰 부담을 주지 않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영미권 독자들에게는 인지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영어 표층결속성 측면에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학습자들 중 상당수가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는 문화특정항목 번역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문화특정항목의 번역 과정에는 문화적 요소를 최대한 손실 없이 전달하면서도 목표 언어와 문화권, 그리고 텍스트를 읽는 대상 독자의 기대를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단순히 적절한 번역 전략을 이해하고 익히는 것에서 나아가, 텍스트 차원의 특성과 언어 간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번역 전략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H마트에서 왔다』에 나타난 문화특정항목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AI/기계 번역과 인간 번역이 텍스트 결속성과 문화적 맥락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학습자 설문 조사를 통해 표층결속성, 번역 전략 측면에서 문화특정항목 번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번역 교육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AI/기계번역은 문화특정항목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텍스트 결속성과 문화적 맥락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원문의 구조를 그대로 직역함으로써 번역문 내에서 문화특정항목의 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반면, 인간 번역은 문화특정항목이 포함된 문장 및 텍스트의 구조를 맥락화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이는 인간 번역이 원문의 문화특정항목과 관련된 표층결속성 장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번역문 내에서 반복 표현을 사용하는 등 한국인 독자를 고려하여 결속성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인간 번역이 기계번역 보다 문화적 의미와 텍스트의 결속성을 반영하는 데 강점을 지닌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학습자 설문 결과, 한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와 영어의 표층결속성 구현 방식 차이를 이론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비교군인 외국인 학습자들에 비해 사례를 중심으로 영어의 표층결속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 또한, 영어와 한국어에서 문화특정항목의 표층결속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간 의견 차이가 나타나 텍스트 차원에서의 고려가 명확히 적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번역 전략의 측면에서도 학습자들은 문화특정항목 번역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 특히,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 동일한 문화특정항목에 일관된 번역 전략을 반복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학습자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영어 표층결속성과 영미권 독자의 배경지식에 대한 고려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번역 교육에서 문화특정항목의 결속성을 고려한 번역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례가 한정적이며, 외국인과 한국인 학습자의 샘플 크기가 균일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어휘 차원에서 일대일 번역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문화특정항목 번역을 텍스트 차원으로 확장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H마트에서 온다』는 영어로 작성된 작품이지만, 다양한 한국 문화특정항목을 다채로운 번역 전략을 통해 제시하고 있어 학습 차원에서 참고할 가치가 크다. 학습자들에게 영어의 표층결속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영미권 독자를 위한 문화 중개(cultural mediation) 방식으로 번역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AI/기계번역과의 공존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AI/기계번역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문화특정항목을 효과적으로 번역하는 다양한 전략을 익히는 동시에, 텍스트 결속성과 독자 수용성을 고려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번역 교육에서는 기계번역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활동과 함께, 인간 번역이 기계번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텍스트와 학습자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하고, 번역 교육에서 문화특정항목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수될 수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결속성을 고려한 문화특정항목 번역 전략이 번역 실무 및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인 용 문 헌

- 권오숙. 「한국문학텍스트 영역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의 경향 연구」. 『통번역학연구』, 18권 3호, 2014, 263-89쪽.
- 김윤진. 『문학 번역의 방법론 - 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북스토리, 2007.
- 마승혜. 「디아스포라 문학과 K-푸드: Crying in H-Mart와 영미권 독자 반응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71호, 2023, 59-82쪽.
- 박혜선, 최진실. 「학부 교양영어 수업에서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사용자 인식과 오류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4권 1호, 2023, 71-107쪽.
- 이근희.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의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4권 2호, 2003, 5-27쪽.
- 이상빈. 「왜 snack-wagon은 p'ojang mach'a가 되었는가? 문화용어 음차 번역의 상대적 지위와 통시적 변화」. 『통번역학연구』, 28권 3호, 2024, 117-36쪽.
- 이선우, 이상빈. 「기계번역 사용, 기계번역 교육, 번역가 진로에 관한 인식 조사: 학부 번역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통역과 번역』, 25권 1호, 2023, 49-73쪽.
- 이승재. 「관광홍보물 번역텍스트 분석과 관광언어」. 『통번역학연구』, 16권 3호, 2012, 157-81쪽.
- _____. 「공공번역표준화를 위한 모델제안: 국내 관광번역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통번과 번역』, 16권 3호, 2014, 59-80쪽.
- 정호정, 최소희. 「번역표기 훈령과 공공번역 표준화 정책: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이후 번역 실태 연구」. 『영미연구』, 48집, 2020, 157-90쪽.
- 정희모. 「한국어 교육과 결속성(cohesion) 및 응집성(coherence)의 문제」. 『통리터러시연구』, 10권 4호, 2019, 89-123쪽.
- 최은경. 「Crying in H-Mart에 나타난 문화 번역과 번역 전략: 문화특정항목을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16권 3호, 2023, 305-27쪽.
- 한정환. 「국어 텍스트의 어휘적 응결성과 어휘의 미망 -체계기능언어학(SFL)의 관점-

- 」. 『동양학』, 86호, 2022, 127-55쪽.
- 홍승연, 윤미선, 최은경. 「학부 문화번역 수업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한 교육방안 모색」. 『영미연구』, 56집, 2022, 189-214쪽.
- Enkvist, Nils Erik. “Coherence, Pseudo-Coherence and Non-Coherence.” *Reports on Text Linguistics: Semantics and Cohesion*, edited by J. O. Ostman and Åbo Akademi, 1978, pp. 109-27.
- Florin, Sider. “Realia in Translation.” *Translation as Social Action*. Routledge, 2018, pp. 122-28.
- Franco Aixelá, Javier.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edited by R. Alvarez and M. Carmen-Africa Vidal, Multilingual Matters, 1996, pp. 52-78.
- Halliday, M. A. K., and Christian Matthiessen.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Routledge, 2014.
- Halliday, M. A. K., and Ruqaiya Hasan. *Cohesion in English*. Longman, 1976.
- Ivir, Vladimir. “Procedures and Strategies for the Translation of Culture.” *Translation Across Culture*, edited by G. Toury, Bhri Publications Private Ltd., 2002, pp. 35-46.
- Mailhac, Jean-Pierre. *The Formulation of Translation Strategies for Cultural References*. European Studies Research Institute, 1995.
- Newmark, Peter. *A Textbook of Translation*. Prentice Hall International, 1998.
- Zauner, Michelle. *Crying in H Mart*. Alfred A. Knopf, 2021.

Abstract

Translation of Culture-Specific Items in the Age of AI: Educational Implications from *Crying in H-Mart* – Exploring Translation Strategies and Cohesion

Choi, Eun-Kyo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study aims to examine how machine/AI translation and human translation handle textual cohesion and cultural context in translating culture-specific items (CSIs), using *Crying in H-Mart* as a case study. It also explores learners' perceptions of cohesion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translations, considering their implications for teaching cultural translation in the AI era.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eeks to propose educational approaches that enhance learners' understanding of CSI translation, bridging the gap between translation strategies and textual cohesion. Culture-specific items are elements unique to a specific language or culture or those embedded with cultural connotations, often posing challenges in translation. While existing research has primarily focused on translation strategies at the lexical level, translating CSIs often requires considerations beyond lexical approaches, especially when CSIs appear repeatedly or are context-dependent within a text.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how machine/AI translation processes CSIs at both the lexical and textual levels. Additionally, it investigates how learners perceive and understand CSIs not only in terms of translation strategies but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surface cohesion through survey analysis. This study confirms the need for translation approaches that extend beyond one-to-one lexical correspondence to consider textual

cohesion. Finally, it offers insights into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cultural translation in the age of AI.

Key Words: *culture-specific items (CSIs), translation education, AI translation, cohesion, translation strategies*

논문접수일: 2025.1.15

심사완료일: 2025.1.30

게재확정일: 2025.2.08

이름: 최은경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초빙교수

이메일: eunyoung.choi@daum.net